

2015 교육과정 개정 과정상의 문제점

정 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 2015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정리하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핵심역량의 반영,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위한 학습량 적정화임.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은 국가사회적 요구, 학습량 적정화는 학습자와 교과 전문가의 견해에 의해 구성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임.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정 개정은 시대사회적 요구이며 학습자와 전문가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힘.
- ◇ 개정은 이미 시작됐고 각론에서 많은 교과 연구진이 연구진행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총론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니만큼 개정의 타당성이나 정당성, 다시 말해 명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임. 그러나 총론에서 방향을 정하고, 각론에서 이를 구체화시키는 맥락에서 총론 연구진들의 역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1. 각론과 불일치

- ◇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서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총론과 각론의 관계임. 총론과 각론의 병진은 2015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왜냐하면 기존 교육과정 논의에서 총론과 각론 연구는 별개로 진행되어 전체 교육과정의 취지가 흔들린 경우가 많았고, 또한 각 교과가 총론의 교수-학습이나 평가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은 경



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총론과 각론의 상시 공적 검증이 가능해야 할 것임.

- ◇ 더욱이 각론에서 정해지는 ‘교육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총론의 취지 내지 지향점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임.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통합과정의 상징적인 과목으로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교과가 신설되었음. 그러나 ‘Less is more’가 실현되기보다는 내용요소도 기존 1학년 학생들이 배우기에 너무 많고, 난이도가 높은 내용도 들어와서 총론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음. 발제원고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배울 내용이 너무 많고 이들 내용들이 서로 연결성이 낮을 때 단기적인 것 밖에 기억하지 못함. 따라서 무엇보다 보다 책임감 있고 총괄하는 위치에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론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총론의 내용이 각 교과에서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금이라도 각론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총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2. 수시 개정의 문제

- ◇ 2015 교육과정이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음. 잦은 수시 개정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그 교육과정의 결과나 학교교육의 결과를 확인할 새도 없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함. 이로 인한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음. 그렇다면 최소한 국가사회적인 요구나 학습자 및 교과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개정이 아닌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되도록 학교의 수업 운영 및 교육과정 평가를 개선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교육과정 개선이 되어야 함. 그러나 아직 교수-학습이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고, 내용요소의 구성을 통해 짐작해 볼 때, 총론의 방향과 맞는지 회의적인 부분이 많음.
- ◇ 잦은 개정의 문제와 더불어, 교과서 개발과 학교현장의 정착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각 파트의 연구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인상을 줌. 지난 4~5월, 1차 교육과정 연구팀이 발표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요소도 정리가 되지 않았고 더욱이 교수-학습, 평가에 대한 논의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음. 총론이 지난 해 9월에 발표되고, 각론은 4월 중순경이니 기간도 짧고 교수-학습, 평가는 현재 연구 중이니 전체적으로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총론과 각론이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내용요소, 교수-학습, 평가가 모두 일치하는 지향점을 가져야 타당할 텐데 현재 총론, 각론팀이 추구하는 자율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물을 수밖에 없음.

〈표〉 교육과정 개정 및 적용 시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09 교육과정(총론)	[고시]		초등1,2 중학1 고등1	초등3,4 중학2 고등3	초등5,6 중학3 고등3							
2009 교육과정(각론) ≡ 2011 교육과정			[고시]		초등1,2 중학1 고등1 영어	초등3,4 중학2 고등1 고등2 영어	초등5,6 중학3 고등2 고등3 영어	고등3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고시]			고등1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3. 학습량의 적정화 문제

- ◇ 발제문에서는 학습량 적정화에 대해 명확히 언급했으나 실제로 각론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 아울러 총 단위수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의 갯수를 20% 감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 있음. 고1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의 경우, 현행 사회교과보다 성취기준의 갯수를 감축하려고 하지만 반대급부로 내용요소는 늘어가고 있음. 실질적으로 2015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인 통합교과, 즉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은 내용요소가 늘어 “300페이지가 넘는 교과서가 등장할 것”이라는 현장 교사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 뿐만 아니라, 이것이 ‘Less is more’의 적정화 취지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음.
- ◇ 또한 80% 적정화, 즉 내용 및 성취기준 20% 감축이 학교현장에서 이뤄질 경우를 고려해야 할 것임. 자유학기제와 여러 행사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80%는 결국 100%에 해당하는 시수로 학습이 쉽 없이 돌아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임. 이러한 학교현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성취기준의 감축과 더불어 실질적인 내용요소를 감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용요소의 양적인 감축이 수준 자체를 낮추자는 것은 아님. 국가교육과정의 수준을 ‘중’ 수준으로 하되, 내용요소와 성취기준을 줄여가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그러나 이러한 학습의 양적 적정화, 시간과 배당시간의 적정화가 해당 교과의 교육의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님. 단위 시간 내 교육내용에 대해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수업의 질 개선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임. 특히, 총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수업활동을 위한 교수-학습의 변화와 함께 평가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난 2009

개정처럼 선언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그 이유는 현재는 내용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이 없고, 더더욱 고등학교 수업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능에 대한 논의가 없기 때문임.

4. 평가에 대한 논의

- ◇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함.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만으로는 교육 개선을 초래하기 어려우며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평가가 연계되어야 함.
- ◇ 또한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의 불일치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파행 운영 문제는 심각한 상황. 교육과정 운영은 수능에 종속되어 있는데 편성은 왜 수능이 없는 것처럼 하는가? 교육과정은 3학년 2학기까지 정상적으로 편성하지만, 수능은 3학년 2학기 중간에 실시. 수능을 전후로 한 파행 운영이 당연하다는 인식. 예를 들어, 현재 고등학교 이과수학교육과정은 4과목(미적분 I, II,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이고 이를 2학년 때부터 다 마치려면 4학기가 필요함. 따라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함(한 학기에 2과목을 편성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고, 집중이수제의 제약도 있음).
- ◇ 게다가 지금은 ‘수능-EBS 연계 정책’에 따라 고3 교육과정은 EBS 교재로 채워 짐. 그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은 더욱 심함. 그런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교육과정을 지키라는 압박이 들어옴.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지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수능제도의 개선을 가져와야 이런 파행 운영이 해결될 수 있음. 이 뿐만 아니라, 선다형 평가나 석차표기 등 구체적인 평가의 논의가 없이 지향점만을 발표할 경우, 각론에서 기존의 것과 다르지 않는 평가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 현실임.

5. 나가며

- ◇ 2015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총론팀과 각론팀의 불일치를 시급히 해야 할 것임. 특히, 각론에서 내용요소가 증가하고 있고 난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지금이라도 총론팀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각론과정을 살펴야 할 것임. 또한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수능 발표를 해야 할 것임. 현재까지는 수능을 생각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수능 부분이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고려해야 할 것임.

- ◇ 아울러, 새로운 교육과정이 그 원래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일관성을 갖추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학습량 적정화에 대한 논의가 9월 발표 전까지 더욱 논의되어야 할 것임. 또한 교육과정 개발 전부터 학계와 학교현장, 그리고 관련된 자격을 갖춘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